

하나님을 아파라고?

효자제일교회 전도사·홍 순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개역, 로마서 8:12~17]

하나님을 아파라고 불러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에 있는 사이비 중에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했던 사이비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구절이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터무니없는 엉터리로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아무리 몰라도 그렇지, 그렇게 모르고도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할 수 있었고 그런 엉터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정말 묘한 일입니다. 아바 아버지가 어떤 의미며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얼 요구하시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빛진 자로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빛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무슨 빛이 있기에 아멘 하십니까?

사랑의 빛.

사랑의 빛? 괜히 놀랬잖아요. 좋은 빛을 지고 계십니다. 여러 종류의 빛이 있지만 돈 때문에 어려운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 성질이 좋지 않은 고참이 있었어요. 휴가 나갈 때마다 갔다오면 갚을 테니 돈 좀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서 갑니다. 갔다오면 주겠지 하고 빌려주는데 갚은 것은 없습니다. 고참이 이런 식으로 졸병들의 돈을 많이 걷어가서 갚지 않아요.

그런데 졸병 중에 지독한 졸병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항상 그 고참을 따라다니면서 돈 내놔라 하는 거지요. ‘돈 갚으세요’ 하면 ‘야, 곧 준다. 그까짓 거 떼먹을 줄 아냐?’ 하고는 미루다가 집합하는 기회가 있으면 더 두들겨 패지요. 그런데 이 졸병이 실컷 두들겨 맞고도 틈만 나면 내무반에 앉아 있는 고참에게 손가락질해서 불려냅니다. 불려내면 이 고참이 슬슬 따라 나오죠. 그러면 내무반 뒤에 가서,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언제 갚을랍니까?’ ‘야 갚는다 갚아’ 그러다가 집합했다 하면 이 친구는 훨씬 더 얻어터 집니다. 또 틈만 나면 손가락질해서 고참을 불려내고 그 때마다 그 고참이 달려나가요. 어차피 돌려주려고 빌려 간 것도 아니지만 그 빛 때문에 졸병이 불려도 불려나가는 거지요. 아무리 고참이라도, 사람 취급도 않는 졸병의 손가락질에 불려나가는 것이 바로 빛의 위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유의 빛은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가령 부부 사이에 사랑의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는 어떻게습니까? 하나님에게 진 빛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빛이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남편에게 많은 사랑의 빛을 졌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참 행복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정말 많은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참 행복합니다. ‘빛은 전혀 없고 배운 것밖에 없는데요?’ 그런 관계는 좋지 못합니다. 부부 사이란 것은 정말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해서 남편을 삼고, 나를 선택해서 아내를 삼았다.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의 빛 아닙니까? 자기 집안을 떠나서 본적까지 바꾸어가며 시집와서 내 아이를 낳아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까짓 거 이불 좀 개어 달라는 것이나 치약 옆구리 누르지 말라는 잔소리 정도야 감지덕지 아닐까요? 그 빛을 갚기 위해 부부끼리 노력을 하십시오. 참 아름다운 생활이 될 겁니다.

식사하면서 밥 한 그릇 속에서 농부에게 감사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농부에게 내가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신발 한 켤레 신으면서 공장에서 수고하는 노동자를 생각한다면 그 역시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빛을 많이 졌으면서도 못 느끼는 것이 부모에 대한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란 어렵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느냐는 것을 아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행복하거니와 부모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사랑의 빛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사랑의 빛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지 모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써 어떤 자세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표현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긍정적 표현으로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후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라고 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빛을 지긴 졌지만 육신의 빛을 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빛을 지지 않았다는 것은 육신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빛쟁이만 보면 괜히 기분 나쁘고 피해가고 싶지요? 그러나 빛을 다 갚고 나면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군에 갔다온 사람은 잘 압니다만 모처럼 외박을 나가면 현병이 무서워요. 당당하게 외출증 끊어 나가도 현병이 있나 없나 멀리서 눈치만 보고 서 있다가 현병 없을 때 기차에 오릅니다. 현병이 안 보이는 곳에서 뛰어 내립니다. 그러다가 현병하고 눈이라도 마주치면 간이 덜컹해요. 현병? 무서워요! 그런데 제대하고 포항 들어오는데 김문소 현병이 올라와서 '김문 있었습니까' 하니 웃음이 나요. 왜? 이제는 김문을 하든 말든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도 현병을 보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웃어요. 저 현병이 그 때는 그렇게 무서웠나 싶은 것이 우스워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육신에게 빛진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육신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몸의 행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스스로 육신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생각나요? 육신에 빚져서 육신대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술 먹는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담배 피우면? 가끔씩, 빠서는 안될 음란 비디오를 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육신대로 사는 겁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어렵습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서 남에게 베풀기도 어렵고 현금도 아깝고 남 도와 주는데 돈을 쓰기는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몸의 행실이 살아 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데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표현을 바꾸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육신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판별이 술이나 담배를 더 사랑한다? 시기나 질투심이 있느냐? 따위를 가지고 판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술도 못 끊고 담배조차 못 끊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

우리 속에 부족한 점이 있고 못 하는 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해서 안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를 믿는 한 비록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에 만족스러운 자녀를 보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매우 만족스럽습니까? 공부도 못하고 날마다 사고 쳐서 학교에 불려 다니면 내 자식 아닙니까? 못난 자식은 자식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완전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너무 심하게 자책하지 말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부족한 점이 많더라도 자식은 자식입니다. 겨우 술, 담배 가지고, 겨우 돈 몇 푼이나 성질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겨우, 술? 담배? 성격이 좀 더럽다고? 그런 보잘 것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냐를 따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 보십시오. 그렇게 살고 있으면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만족스런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 가야지요. 당장예요? 그러면 더욱 좋지만, 시간이 좀 걸린들 어떻습니까?

흔히 “교회 감시다” 하면 끊을 것도 끊고 사람이 온전하게 된 다음에 교회 나가야지요라고 말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버릇이 끊어야지 한다고 그게 끊어집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담배를 조절하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담배를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면 끊어요. 한달, 두달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또 피워요. 그러다가 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또 끊어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담배를 끊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담배만 그럴까요? 도박도 그렇습니다. 간증을 듣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도박 외에는 나무랄 것이 없는 좋은 남편이 밤 늦도록 도박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아무리 말려도 안되니 새벽에 돈 다 잃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부인이 평평 울었더니 남편이 칼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손가락을 잘랐답니다. 다시는 안 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짜매가지고 또 합니다.

김 집사님은 그런 거 참 잘 알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좋지 않은 버릇이 내게 있는데 그것을 끊어야지? 잘 안 끊어집니다.

국민일보에 사이버 음란이 마약보다 더 무섭다고 기사가 났더군요. 마약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음란이 더 문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0대 법무사를 지낸 퇴직 공무원인데 명문대 법대 졸업하고 25년간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분의 아내 이야기가 지금까지 외박 한번 안 하고 술, 담배도 멀리한 모범 가장이었답니다. 퇴직하고 인터넷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더니 본인이 음란 사이트를 51개를 만들어서 차마 보여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내용을 실어서 운영하다가 결국 경찰에 입건된 거죠. 그 기사 끝에 이런 분에 대해서 인제대 신경정신과 어느 교수가 처방을 하면서 조금씩 줄이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완전히 끊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조언이지만 그렇게 각오를 한다고 끊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봅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내 속에는 나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울의 탄식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요? 제일 좋은 답은 확실하게 단번에 끊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양봉을 하시는데 가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카시아 꿀이 한참 날 때 지나가던 사람이 “여기 설탕 안 들어갔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해요? 넣은 사람은 넣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물으나마나 한 질문이라도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대답한답니다. “꽃에 꿀이 있을 때는 벌이 설탕물을 줘도 안 먹습니다.” 벌 한통을 키우려면 1년에 설탕 1포는 들어간답니다. 물에 타서 주면 다 가져가서 벌통에 채웁니다. 그러나 꽃에 꿀이 많으면 설탕물을 안 가져갑니다.

나쁜 습관을 끊어야 한다면 왜 벌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에게 좋지 못한 습관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끊어야지 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끊으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쪽으로 시선이 나 관심을 옮겨놓으면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내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관심을 옮깁니까?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에 참석하려면 사는 방식을 바꿔야 가능합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 연속극 즐기면서 새벽기도에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영, 육간의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생활이 그렇게 되기에는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나 큼니다. 연속극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 외에도 이런 세속적인 유혹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를 멀리해야겠다고 생각해도 그런 다음 무엇을 할 것이냐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가기 위해서 일찍 자지 않으면서 TV나 비디오에서 멀어지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좋지 못한 습관을 끊어야지 하는 노력보다 예배, 새벽기도, 찬양, 성경공부, QT,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정신을 쏟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습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설탕물보다 더 단 꿀이 있다는 것을 알면 벌이 설탕에 달려들지 않는 것처럼 무조건 끊어야지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즐거움을 배워야 우리의 습관도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라! 어떻게 죽여요? 우리의 관심을 이런 것으로 의도적으로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열심과 관심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이란 단어를 마음이라고 바꾸어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과 양자 중 누가 더 말을 잘 들을까요?

종.

아니, 종하고 양자 즉 아들하고 누가 더 말을 잘 들어요?

종.

종이 왜 말을 잘 들어요?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이유가 뭘니까?

쫓겨날까 봐.

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군요. 쫓겨나는 정도가 아니라 잘못하면 죽지요. 성경이 기록될 때의 종을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듣는 종은 죽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두려워하니까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은 부모의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집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을 잘 합니까? 잘 한다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요? 죄송합니다. 착한 아들, 딸들을 흥파서요. 대체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더 커 보십시오. 아무리 야단을 쳐도 별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학교에서 종종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애들아 집에 들어갈 때 무엇이라고 인사하니?” 기대하는 대답은 “다녀왔습니다.”인데 제가 상상도 못했던 답이 많이 나오더군요. “다녀 왔데이...” 이걸 양반입니다. 심지어는 “내다” 그러고 들어 간대요.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했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아파가 있다가 “누고?” 한답니다. 그러면 “내다” 하고 들어 간대요. 집에 그런 아이 없습니까? 간이 부었잖아요. 그런 아이가 선생님이 부르면 “예” 하고 선생님보다 더 나이 많은 엄마가 부르면 “와”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 붙들고 존대말 쓰라고 가르쳐 보십시오. 잘 안 통해요.

우리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자기 엄마도 선생이고 학교 담임도 선생이지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 뭐

하나 시켜놓았습니다. 엄마가 “그거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 듣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옆에서 돕습니다. “야, 네 엄마도 선생님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해도 안 들어요. 부모 말을 정말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왜 아바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어상 *אבא*입니다. *א*가 돌이니까 아파지요. 아파라고 번역하기는 뭣해서 아바라고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렵습니까? 교회를 하루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 하나가 빠진다 그래서 교회를 빠지지 않고 꼭 가야 한다. 이건 두려움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무엇이래 표현하지요?

종의 마음.

그렇습니다.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무섭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신 양자의 영을 받았지요. 다시 말하면 아들의 마음을 받았습시다. 아들의 마음을 받아 아버지를 부를 때 아파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보고 아파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일 하나님이 오시면 환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깐만요. 며칠이라도 더 있다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오실까 겁이 납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내 생활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나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셨으면 나의 잘, 잘못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남들처럼 차도 없었으니까 자전거에 태워서 시내를 잘 돌아 다녔습니다. 좀 거창하게 “세상 구경하러 가자”면서 돌아 다녔는데 유치원 다닐 때 어느 날인가 “아빠” 하고 부르더니 “내일 부터는 아빠 안 하고 아버지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고 부르는데 느낌이 어땠을까요?

징그러워요.

맞아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징그럽다는 것은 부자지간은 예의보다 친근함이 우선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의보다는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두다보면 때로는 아이같은 어른도 생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친밀한 부자지간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이적 중의 이적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감히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홍길동이 집을 나가서 온 천하를 요란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인간사에서도 서자라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린 아이같은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너무 과분합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존심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까?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잠을 못 이루는 따위의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심은 가지고 삽시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친아들이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존심을 가지고 삽시다. 영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푼돈 얼마에 목숨을 걸 만큼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주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그것은 푼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을 예수님의 목숨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의 잘못이 예수님의 죽음을 무효화시킬 만큼 큼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도 예수의 보혈을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너무 애용하면 곤란하지만 정 안되면 이 정도 배짱도 가지십시오. “뭇생겼으면 자식 아닙니까?”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자식만 자식입니까?” 언젠가는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자식이 되겠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는 일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만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늘 기억함으로써 점점 자녀다워지는 것입니다.

가끔 술값 인상이나 담배 값 인상 때문에 난리를 치더군요. 관계 있으세요? 에이즈가 만연하고 있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와는 아무 관련 없는 일입니다.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동정인 처녀 총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천연기념물.

예, 천연기념물이라고 한답니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천연기념물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길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과 교사 생활을 실제로 몇 년이라도 해본 사람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니, 실제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발령 받자마자 선생 노릇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서만 자란 어떤 여선생님이 시골로 발령 받아서 화단을 정리한다면서 과꽃을 풀인 줄 알고 모조리 뽑아내는 따위는 아주 약파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스스로도 이래서 어떻게 선생이라고 하겠느냐는 자괴감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학생이나 동료 교사들이나 심지어 학부형까지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자신은 “아이고 이런 나를 선생이라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바로 이 기대감이 교사를 교사답게 만듭니다. 자격증이 있어도 교단에 서 본 적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가 바로 이 기대감입니다. 실제로 자격 미달일지라도 주변의 이런 기대감이 진짜 제대로 된 교사를 만들어 버립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로 원리가 적용됩니다. 비록 못난 자식이지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칭찬하고 기대감을 심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츰 차츰 그렇게 변해갈 것입니다. 남에게 그런 기대감을 주는 것도 훌륭한 일입니다만 자신에게 먼저 그런 기대감을 심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을 결코 잊지 않으시면 바로 그 기대감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런 기대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형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들을 볼 때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입니다. 그 기대감, 바로 그 믿음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아바 아버지라고 불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